

Ἡ ΝΟŌΝΡΟ ἸΜΡΟΝΡΕ 박사Æ 창세기Æ 세션 EÆ 열방 과 바벨탑Æ 창세기 ĈĈÈĈÆĈĈÈĈĎ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열방과 바벨탑, 창세기 10:1-11:26입니다.

9번째 세션은 열방과 바벨탑입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우주 가족의 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신학적인 많은 사상들을 모아 놓은 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중요할 것이다. 10장의 족보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저자가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을 위한 국가표의 중요성을 안내함에 따라 그것이 이해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표제는 실제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 또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묘사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9장에 배경 지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장 10절에 두 번째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에 족보가 있고 11장 10절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조적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장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11장, 바벨탑. 그리고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족보의 반복입니다.

10장에 이르면 마지막 부분이 셈족 속인 21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들 셈의 자손들이니라. 그리고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는 11장 10절에서 시작하여 26절까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셈족속의 족보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자의 마음 속에 셈과 그 후손들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9장에서 발견한 내용 때문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 18절과 19절의 막간이 있습니다. 20절은 노아와 함께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처럼 첫 번째 아담이었고, 이제 노아도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새 노아이다.

그리고 그는 아담처럼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20절의 설명은 포도원 심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포도 재배의 개발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포도주를 개발했다고 말해지는 반면, 창세기에서는 포도원이 인류, 인간의 창조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창세기의 맥락에서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력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술에 취했고, 당신은 그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함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에 대해 수군거리며 조롱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덮는 야벳과 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처럼 아버지를 멸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은 히브리 독자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함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셈과 야벳에게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을 볼 때, 가나안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멸시를 어떤 식으로든 영속시켰을지에 관해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10장에 이어지는 국가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을 위해 도덕 지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 족속의 후손은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대우를 받는 반면, 야벳 족속 과 셈 족속의 후손 에게는 더 호의적인 견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족속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 정죄받고 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다양한 종족들에게 소개될 도덕적 지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또한 셈의 족보를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1장 부터 11장까지 인류의 보편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도기적 인물을 낳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11장의 족보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탄생과 생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족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족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볼 때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4장은 가인의 분할된 족보입니다. 그리고 분할된 족보는 한 족장의 후손이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10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야벳 족속, 함 족속, 셈 족속이라는 세 아들을 모두 갖게 될 것이며, 그 안에는 각 족장으로부터 다양한 후손이 더 세분화되거나 분기될 것입니다.

다른 종류는 선형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셋 족속과 관련된 5장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저자가 빠른 속도로 한 세대에 한 명씩 이름을 붙여 직접적인 계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간소화된 접근 방식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들 셋, 그리고 셋 이후의 모든 사람들 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로 이동하면 동일한 종류의 선형 족보 배열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이 두 족보를 하나로 합치면 5장은 노아가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5장의 결론에는 셈, 함, 야벳의 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1장에서 그 후손인 셈을 선택합니다. 11장에서 10절부터 26절까지 역시 선형적입니다. 저와 함께 11장 26절을 보시면, 그리고 11장 27절에서 이것은 실제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형적인 계보로 인해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낳을 계보를 다른 족보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는 노아가 인간 가족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대격변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상치 못한 종류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 형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악에 몰두한 그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항상 죽음을 초래하는 죄와 반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5장을 소개하는 아담부터 셋까지 이어지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셋 족속으로 식별되는 이유입니다.

노아로 끝납니다. 그 족보는 11장에서 셈 족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5장과 11장에서 국가들의 연결, 즉 상호의존성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아담, 셋,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더 넓은 족보 구조, 바벨 이야기, 그리고 다시 족보를 살펴보면, 불일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의 연대순 배열을 보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원인을 기술하고 있고, 10장에서는 그 원인의 결과, 즉 원인 결과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에서 민족들이 흩어지는 사건과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다양한 민족 집단이 어떻게 번성하게 될 것인지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저자에게 중요한 배치 때문입니다. 저자는 10장 국가들이 반역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성과 함께 바벨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초기 장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가족을 위해 의도하신 축복을 인간 가족을 통해 보존하고 유지하는 은혜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선형적인 방식으로 셈의 족보는 당신을 구원자로 인도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셈족의 족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실 것인지를 배열에 의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9장에 묘사된 저주와 축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과 잘 일치합니다. 이제 족보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개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70개국이 모든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장 5절에서는 야벳 사람들 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중에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종족대로, 나라 안에서, 저마다 언어를 사용하여 그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민족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대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7과 7의 배수를 강조하고 감상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양한 반복을 통해 고도로 구조화된 배열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가족, 야벳 족속, 함 족속, 셈

족속 의 끝에서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콜로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장 5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씨족과 나라와 언어에 따라 영토라고 이미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0장 20절을 보면 함 족속이요, 또 함의 자손이요, 씨족이요, 방언이요, 지방이요, 이제는 나라들이더라.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니 그 종족과 나라대로 그 지역에 있고 그 종족과 방언대로 그 지역과 나라에 있더라 그런 다음 10장 32절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나라 안에서의 계보에 따른 노아 아들들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땅 위에 퍼지니라. 따라서 우리가 콜로폰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종족 그룹을 포함시키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 기준에 따라 국가표를 모으는 것이므로 민족, 민족, 언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또한 영토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 집단인 지정학적 사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지리학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종족 그룹의 지리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가 있고 영토와 국가가 있고 여기에 언급된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보를 생각할 때 엄밀히 말하면 생물학적 사상의 계보는 아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족보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서는 미츠라임(Mitzrayim) 이라고 하는데 , 그런데 미츠라임 은 이집트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두 이집트 즉 상하 이집트를 뜻합니다. 이집트의 미츠라임(Mitzrayim)은 이러한 다양한 항목 의 조상이었으며 그들은 13개 항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족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우리가 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15절에서 가나안은 시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이자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는 시돈을 자신의 장자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집합이 모든 장소의 생물학적 혈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가 될 집단, 즉 개인 간의 연결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욕구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삽입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니므롯에게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스, 즉 6절에 나오는 함의 자손 중 한 사람인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였으며, 니므롯은 땅에서 강한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사냥꾼이었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은 큰 사냥꾼이니라 하는 속담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니므롯의 후계자들을 나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10절에 묘사된 나라들, 11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입니다. 이제 이것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긍정적인 진술로 봅니다. 이것은 축복과 함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다소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단지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발전을 감독하고 계시다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홍수를 가져온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과 타락을 묘사하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셋 족속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악하게 된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그것도 주님 앞에 받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바빌론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히브리 민족의 최대 적 중 하나였으며, 이는 우리가 11장에서 바빌론 탑을 통해 발견한 내용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Nimrod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국가표가 명성을 얻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표에 다음의 자손이 있을 때인데, 예를 들어 10장의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강조이므로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

그리고 8절에서 본 것처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조상이 있는데, 그 특정 조상의 자손의 발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에 나오는 소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즉, 9장 1절부터 1절까지, 또는 1절의 반복, 7절에 노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서문입니다. 9장 1절은 1장 28절에 창조 당시의 축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확실히, 표에 있는 족보에 관해서는, 그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가득 채워야 하며, 그것이 민족들의 다양성을 묘사하는 10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국가들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언어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의 인간성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다양한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과 목적입니다.

국가표의 세 번째 장점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들에게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여러 민족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출하시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에 펼쳐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Nimrod에 관해서 이미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지역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읽어 보세요.

당신은 니느웨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앗수르의 주요 도시입니다. 이집트가 언급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적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열방을 구성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목적, 즉 더 큰 단계, 더 넓은 틀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종족의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계획하신 축복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취하시는 조치들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열방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에 백성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기서 이스라엘의 수는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로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 가족 중 70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 설교에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의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의 일을 생각할 때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경주하고 싶습니다.

또한 10장을 읽고 70개국을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이 창세기와 토라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독자들이 읽고 감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성경 작가들이 보여준 언어와 문학의 숙달을 보여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마도 책, 족보 목록, 글, 구술 기억, 설화와 시와 같은 다양한 장르,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족보 등에서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엮는 것이 아닙니다. ,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결과로 에덴동산, 즉 심각한 적, 즉 무덤 자체를 창조하셨는지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류 가족에게 축복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구조가 그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절도 보시고 9절도 봅시다. 이것이 비슷한 말의 시작과 끝이라 부르는데 괄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용되고 설명되는 문학적 언어를 포함(inclusio) 또는 포함(inclusion)이라고 합니다.

1절, 이제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이고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천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었을 때 알 수 있듯이 문제는 바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야기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도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단결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과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1장 28절과 9장 1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특권이 있고 축복의 유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 종족, 영토, 땅, 창조된 땅의 질서의 일부를 유산으로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 즉 이주하고, 인구를 늘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집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창조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섬기는 부섭정으로서의 파생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상 중요한 것은 반전의 발상이다. 이를 교차구조(chiasmus) 또는 X와 같은 교차 구조라고 하며, 거울상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홍수 이야기에서 본 묘사, 즉 망대의 오르기와 건축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 홍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8장 1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강한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고 거기서 파괴되고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었으며 그리하여 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5절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정상을 보여 주지만, 주님은 내려오셨고, 내려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바빌론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그들의 동기가 교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4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떨칠 수 있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는 수많은 말장난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말장난은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자.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천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이제 바벨의 소리에 대한 연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게 번역된 단어가 바알랄 이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그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과 바알 .

하나님과 히브리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벨은 미덕이나 위대한 성취의 전형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 서사인지, 왜 응집력 측면에서 아름답게 구성되었는지를 문학적 특징을 통해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5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기념비인 이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닿는 탑임에도 불구하고(4절),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류의 의도를 조롱하기 위한 하나님의 쇼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묘사입니다.

인류는 통일된 방식으로 신에 대한 충성이 아닌 그들 자신에 대한 충성과 목적을 고려하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5절 을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하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강림하셔서 연합된 민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가능해졌고, 이 탑을 건설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학적 특징이 유익한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볼 때 각 지점에서 이미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흠어져 있는 사람들의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와서 벽돌을 만들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연합된 민족의 편에서 협력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성을 쌓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수형, 흠어지지 않고 이름을 내자. 그러나 물론 흠어짐도 일어나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랬나요? 간접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언어의 다양한 변증법적 차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것이 9절 끝에서 다시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장 18절, 18절 후반을 다시 보면,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은 흩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의 혼란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제 메시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존심의 위협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기술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진흙 벽돌을 가져다가 불을 붙인 다음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시대의 첨단 기술로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절에 나오는 일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해설자는 회반죽으로 돌과 타르 대신에 벽돌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가나안에는 돌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은 가나안 평민들의 주요 건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영합니다.

6장 4절에 옛날에 명성이 높았던 용사들에 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이름입니다. 그들은 오만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연합, 즉 거짓 연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족, 즉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는 경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국가들의 단결이 멸시되는 것입니까? 이는 국가들의 단결이 하나님에 근거하거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교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일된 6일 창조 기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물과, 인간과 그 자체 안에도 남성과 여성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치를 추구하는 동안 그 일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공통의 인간성, 즉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아래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에 관해서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선호된다고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통 인류 가족의 연합 내에서 작용하는 한, 그 다양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 즉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된 십자가에 못박힌 구세주 그리스도의 보좌 주위에 하늘 예배의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언어, 즉 다양한 종족, 민족, 언어의 언어가 모두 조화롭고 통일된 찬양과 감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의 목적 중 하나는 바벨,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이방인의 자존심과 기술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상부 구조물을 건설했는데, 탑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것이라는 생각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고, 밑부분은 편평하고, 직사각형이거나, 정사각형이고, 그러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산의 형상을 이룬다. 산, 지평선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거기에는 땅이 있고 지평선에서는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지구라트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당신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이름을 바빌론으로 지은 것은 정치적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물론 바벨은 혼란스럽습니다.

바빌론은 히브리어처럼 들립니다. 바벨은 히브리어처럼 들립니다. 바빌론은 실제로 신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또는 단순히 신들의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를 상상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경우 이방 세력은 신들의 지도 아래 건설되었다. 그러나 지구라트에는 신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바빌론에도 신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바빌론은 인간에 의해, 인간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고 신들은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독교 독자로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 기독교 독자로서 우리는

세계 자체 내에서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언어의 장애물임을 인식합니다.

언어의 장애물은 다른 문화의 일부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문제는 국가가 국가에 반대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방법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 인구가 있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알려진 큰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그리스어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의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마찰과 파괴를 극복하실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화롭게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인 무리 곧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요 우렛소리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듣기 때문에 당황하여 모였습니다. 보라, 저마다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다양성이 극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서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북부 지역 출신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듣던 유대인 유다 방언과 달리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계속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그것을 모국어로 들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 여행에 대표되었던 나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 영토 거주지의 언어, 즉 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 목록이 있는데 실제로는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인과 메대와 엘람인이니 이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리비아 여러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이니라 키레네 근처.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 방문객들입니다.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 보아왔듯이 우리에게서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일, 즉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류의 다양성을 일치, 즉 하나님의 하나됨에 기초를 두고 그 기초를 둔 일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던 것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에녹에게서 보았듯이, 노아에게서 들었듯이, 당신도 그러합니까, 우리도 그러합니까? 일하는 것,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이신가요?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달리 주님께 반역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을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던 날 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의 첫 조상처럼 늘 영생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동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들 곧 제자들이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상호작용적이고, 관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러한 교제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이 진짜,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삶에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주요 단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자기 건설적인 탐에서 돌아서게 될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복종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열방과 바벨탑, 창세기 10:1-11:26입니다.